



한호철
양육팀장/한정식숙

세상을 바꾸는 사람

광명을 꿈꾸다

19세기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과 자국주의 시대의 흐름속에서 조선은 일본의 강압으로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상실했다. 일제치하에서 숨죽여 살던 조선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조선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3.1운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독립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함성'이었다. 그렇게 3.1운동은 조선 독립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조선 독립의 염원은 꺾이지 않았고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의 암흑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던 광명을 맞이하게 된다.

믿음을 지키다

기나긴 독립의 과정에는 자유를 희망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1919년, 함께 꿈을 품고 '만세의 함성'을 외쳤지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지 않자 몇몇은 자신의 꿈을, 아니 '함께 꾸었던 꿈'을 버렸다. 누군가는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친일파로 돌아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한 생각', '옳은 신념', '뜨거운 믿음', '현신의 사랑' 등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보여주

시고, 지켜내는 몫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말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프로그램 되어있는 자유의지는 빠른 속도로 그 가치들을 "Del(Delete)"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가 그 일에 진실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옳은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고민과 갈등은 나의 '신앙 DNA'에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매순간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며, 언젠가 또 변질되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다.

100년 전, 불의와 절망 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세상을 바꾸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광화문 촛불시위까지 이어졌다. 아무도 억압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기도했던 사람들, 켜켜이 쌓여온 불의앞에서 침묵을 깨고 분연히 일어났던 시민들, 그들 모두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다.

나는 이제, '나의 배부름'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주신 사명을 겸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터에서 울렸던 함성, 광화문에서 이루어졌던 불꽃을 기억하며 애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나의 믿음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발버둥치며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세상을 바꾸는 성도로 살 것이다.

배화교회

주보 제 2019-8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2.24



주현 후 제 7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하나님이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회 중 :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함께 :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호산나 +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 예수 이름 높이세

대표기도 노준영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옵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2장 20-26절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 고양이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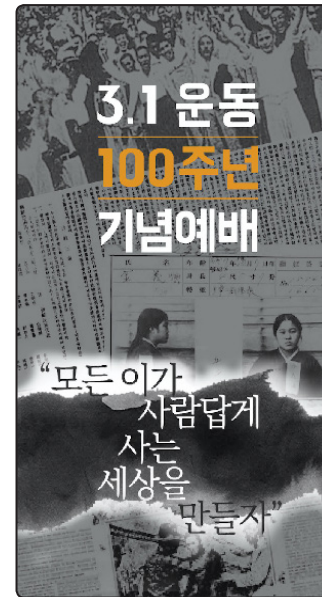
찬양과 기도 <시선>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81명
헌금	십 일 조 김택운 박진성 백수산나 서민욱 이아름 송민혜 임주하 무명 감사헌금 김관석 김기택 김지운 서광희 서정래 성임숙 목적헌금 성임숙 주일헌금 김백준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박세연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윤서진 배성경 윤영미 이기순 이동근 이은미 이병홍 주 영 최명성 최영광 최정용 추세영 허경식 무 명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속회시즌 8

1.13-3.24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스트레스, 실패, 슬럼프, 분주함, 외로움, 위기, 변화, 역경, 최선.



사랑하는 배화에게

오늘 네 마음은 어떠니? 괜찮아? 알지? 우린 히체운동 따로안해 ^^ 아무 이유없이 널 항상 사랑해 봄벌처럼 네 옆에 있을게 담당할 땐 잠깐 하늘을 봐 이 언덕 위에 작은 빛이 모여있어

3.1절기념예배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도전했던 민족운동으로서 3.1운동을 조명하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양육팀 주관,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 3.1 운동 100주년에 대한 브로셔와 전지도 준비했습니다.

캠퍼스 선교

"사랑하는 배화에게"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을 축복하고 돕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배화캠퍼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배화선교 프로젝트 >>

1. 축복메시지 : "사랑하는 배화에게" 전하는 열 개의 편지를 캠퍼스에 게시
2. 멘토자청 프로젝트 : 자소서 첨삭, 인터뷰 전략 등 학생들에게 도움주기

손으로묵상

<사순절 1,2> 가 준비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완필에 도전하세요!

졸업 축하

박진성 전도사님, 오세희, 이주혜, 김지윤, 김승주, 김영서 청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51속, 다음 주는 일상속입니다.